

전북TP, 안티드론 산업 육성 박차

전북자치도, 드론·무인체계 기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본격화... 5개 기관과 협약 체결

전북이 드론과 무인체계 기반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티드론 산업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전력지원체계 전시회(DUPEX KOREA 2025)' 현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안티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대학교 국방산업연구소 △전북테크노파크 △한국대드론산업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안티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안티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체



△전북대학교 국방산업연구소 △전북테크노파크 △한국대드론산업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계 구축 △정책 기획 및 공동사업 추진 △국책사업 및 R&D 과제 발굴 △전북 방위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 한국대드론산업협회 양병희 회장,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정철식 실장(원장 대행) 등

이 참석해 전북의 안티드론 산업 육성 비전과 협력 전략을 공유했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북은 첨단소재와 무인체계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방위산업과 드론산업의 융복합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티드론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협력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테크노파크는 전시회 기간 동안 K-방산 첨단 신소재·신기술 실증 전조기지, 전북특별자치도를 주제로 전북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8개 방산기업이 참가해 첨단 복합소재, 무인체계, 수소연료전지 드론 등 전북 방위산업의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선보이며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오상근 기자

“꽃병이 추출물, 골다공증 완화 효과 입증”

농진청·한의학연, 뼈 흡수 억제·골밀도 향상 확인

농촌진흥청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식용곤충인 꽃병이(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추출물이 골다공증 완화와 뼈 건강 유지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골다공증은 특히 폐경기 여성과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골밀도가 감소해 뼈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커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골다공증 진료 인원은 2017년 9만3천여 명에서 2021년 11만3천여 명으로 약 25% 증가했다. 연구진은 쥐의 골세포 유사 세포주(MLO-Y4)에 파골세포(골을 흡수하는 세포)를 분해·흡수하는 세포)를 인위적으로 형성시킨 뒤, 여기에 꽃병이 추출물 및 분획물을 처리했다. 그 결과 파골세포의 수와 면적이 현저히 감소해 뼈 흡수가 억제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어 염증성 골 손실이 있는 실험쥐에 꽃병이 추출물(100mg/kg, 300mg/kg)을 2주간 투여한 뒤 CT(컴퓨터단층촬영)로 관찰한 결과, 해면골 손실이 억제되고

골밀도(BMD)와 골체적비(BV/TV)가 상승했다. 또한 혈액 내 염증성 사이토카인(TNF-α) 농도도 감소해 염증 완화 효과가 함께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꽃병이 추출물의 뼈 건강 개선 주요 지표 성분인 L-트립토판이 밝혀졌으며, 관련 논문은 국제학술지 Insects(IF 2.9)에 게재됐다. 농진청은 이를 토대로 꽃병이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의 표준화 및 품종 개발 등 실용화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변영웅 농촌진흥청 산업곤충과장은 “이번 연구로 꽃병이의 항(抗)골다공증 및 뼈 건강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며 “향후 식용곤충산업 활성화와 함께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2025 노란우산 발전 유공자 워크숍’ 개최

노란우산 가입확대 기여한 금융기관 직원 20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의 사회인정 확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기관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에서 ‘2025 노란우산 발전 유공자 워크숍’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란우산 가입 확대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금융기관 유공자를 포상하고, 제도의 지속적인 성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의 노란우산 담당 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란우산 제도개선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여했으며, 고객 응대 우수 사례와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2025 노란우산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는 노란우산 가입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 직원 20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공제상담사, 청약검수 및 고객센터 직원 8명에게는 중소기업중앙회 장상이 수여됐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노란우산 가입 확대에 있어 금융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포용금융

의 관점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는 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노란우산 제도를 더욱 강화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로,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연간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부금 내 대출지원, 연 복리이자를 제공해 안정적인 사업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환경청, 전북자치도와 손잡고 환경영향평가 전문성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23일 전북환경청 중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 일부가 전북자치도로 이양됨에 따라, 전북환경청은 전북자치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 전문가가 평가 항목별 검토·분석 기법과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협의기관 직원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고, 보다 합리적인 평가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북환경청과 전북자치도는 이미 올해 분기별로 대개 및 악취, △동·식물 및 해양 수질 보호,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 등 분야를 주제로 현장 교육을 병행해 왔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이 크거나 민감한 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이번 4분기 교육에서는 환경영향이 큰 토석·토사 채취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3배 증가한 토석 광물 사업 검토 비중을 반영한 것으로, 현장 실무와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JB STAY ON 통장’ 이벤트 당첨자에 경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3일 ‘JB STAY ON 통장’ 신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의 당첨자를 발표하고, 1등 당첨 고객에게 LG 스탠바이미2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전북은행의 모바일 플랫폼 ‘삭뱅크(Sak Bank)’ 전용 페이지에서 JB STAY ON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 이상 충전·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누적 10만 원 이상 충전 및 유지한 고객 중 1명에게는 LG 스탠바이미2가 주어졌으며, 매일 10만 원 이상 충전 및 유지한 고객 100명(총 300명)에게는 1만 원 캐시백이 제공됐다. 또한, 타 은행 계좌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 충전 또는 공과금 납부를 한 신착순 2,000명에게는 커피 모바일 쿠폰이 증정됐다. 당첨자는 전북은행 홈페이지 또는 삭뱅크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 착수

내달 5일까지 접수... 임원추천위, 서류·면접 거쳐 후보 추천

국민연금공단이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공단은 지난 20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사장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인사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등기우편 △이메일(npshr@nps.or.kr) △공단 방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11월 5일 오후 6시까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인사혁신실 7층)에 제출하면 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며,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신입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국민연금공단을 대표해 기관을 총괄할 최고경영자를 선

발하기 위한 절차로, 후보자는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국민연금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책임질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모시기 위한 공개 절차”라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조직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물 선정을 위해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10월 22일부터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